

## 부산시내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김 이 순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 A Study of Stressful Events and the Coping Methods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in Pusan

Lee Sun Kim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essful events, students their coping methods, and to provide data which maintain and promote healthy students, mentally and physicall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otal of 481 students from a technical high school in Pusan.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from February 2 to February 14, 1988.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OVA and a t-test.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 1) As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481 subjects, 376 (78.2%) were boys and 105 (21.8%) were girls. In terms of health, 9.3% were in poor health. From the results, it seems that when students have problems, many of them seek advice from their friends while nobody seeks advice from their teachers. 2) This study found that most students have many stressful events. In boy students, the most serious events were the following : 'death of parents', 'death of brother or sister', 'divorce of parents'. In girl students, the most serious events were the following : 'death of brother or sister', 'death or serious sickness of friend', 'death of parents'. 3) To cope with these events, boy students used positive ways such as the following : 'to listen to music', 'to bear', 'to think through the problems'. To cope with stressful events, girl students used the following positive methods : 'to listen to music', 'to talk with others', 'to sing', 'to sleep' and 'to weep'. A small percentage of students used the following negative methods : 'to drink alcohol', 'to skip school' and 'to escape from hom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event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represen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scores ( $F=1.440$ ,  $p=0.008$ ), health state ( $F=1.388$ ,  $p=0.015$ ),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 $F=1.685$ ,  $p=0.000$ ).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ping methods represen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 $t=-3.100$ ,  $p=0.002$ ).

---

\*본 연구는 1998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일반연구 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 중 청소년기는 주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고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로 성적, 생물학적,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김영숙 외, 1986, 유숙자 외, 1983, 장병립, 1965) 이와 같이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며 가정 및 사회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혼돈의 시기에 있고(고성희, 1984, Werkman, 1974),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갈등의 증가와 불균형의 긴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그리하여 그들은 과도한 욕구불만이나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힘을 잃게되어 신경증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장병립, 1965) 청소년기는 다양한 반응과 변화에 대응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므로 다른 시기에 비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노혜숙, 1986, 최선하, 1992)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주체성을 갖고 높은 자아개념을 확립하여 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 가정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홍강의, 1984)

Selye(1965)는 신체에 가해지는 어떤 요구에 대한 비 특이적 반응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의 강도이며, 모든 생명체는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유쾌함, 불유쾌함 그 어느 것이나 강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잠정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신체의 소모를 증진시킨다고 했으며 Grey & Hayman(1983)은 스트레스는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는 같은 생활사건 또는 변화라 할지라도 이를 경험하는 개체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Bell, 1977) Murphy(1981)는 잦은 생활 변화 사건과 심한 스트레스가 특히 적응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원을 줄여 줄 것을 제의하였

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일이 많을수록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적응행동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이소우, 1986) Compas(1987)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개인의 실제 대처하는 양식은 정서적, 신체적 문제 발생 뿐 아니라 긍정적인 성장발달에 관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니 Jalowiec & Powers(1981)는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문제중심 대처방법과 감정중심 대처방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 했다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들로는 성인에서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다양한 건강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장지숙, 1984, 김미경, 1989, 김영희 외, 1992, 양수 외, 1988, Wilcox, 1981, Williams, 1981, Paykel 1978),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신희선, 1946),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방법이 건강행위와 관련된다는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양수규, 1986, 김경식, 1978, 노혜숙, 1986, 양미선, 1985, 오가실 외, 1990, 오현이, 1991, 강영희, 1981, 최선하, 1992 Newcomb et al, 1981) 본 연구자는 다년간 학교보건 실습지도를 하면서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상의 요구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며 이를 위한 기술 교육을 받는 공업계 등학교의 남녀학생들은 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업계고등학교의 남녀학생들의 스트레스로 경험하게 되는 생활사건과 그 심각성 정도를 알고 스트레스 상황 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파악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자료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부산시내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스트레스 상황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의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방법 양상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스트레스 생활사건 (Stressful Life Events)

가족 및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 청소년에게 적응을 요하는 문제나 스트레스를 주는 특수 생활사건 및 활동과 발달상의 변화사건으로(오가실과 한정석, 1990)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최근 1년 동안 일상 생활에서 경험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활사건 총 30문항에 대해 느껴지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2) 대처방법(Coping Method)

각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지적 요구를 다루거나 대처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를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그 사람 특유의 방법으로 효율적 대처방법과 비효율적 대처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Bell(1977)의 스트레스 도구 35문항과 본 연구자와 양호교사가 면접을 통해 보완한 2문항을 합한 총 37문항에 대해 느껴지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II. 문헌고찰

### 1.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건들은 스트레스 촉진요인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고 있으며 간호학에서도 중요한 관심영역이 되고 있다(김조자, 1983. Bell, 1977)

인간의 생활과정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전통적으로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으로 보는 입장(Halmes & Rahe, 1976)과 적응을 요

하는 모든 자극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입장(Selye, 1965)이 있다

Selye(1965)는 스트레스를 신체에 가해진 요구에 대응하며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 비특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하면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인 스트레스원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 욕구, 억제, 갈등, 목표, 실증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종전의 스트레스를 자극이나 반응으로 파악하려는 입장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Lazarus의 인지 현상학적 모델에서는 스트레스를 상호역동적이고 순환적으로 설명한다 Lazarus와 Folkman(1994)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행동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1930년대 Meyer가 생활기록표를 소개해 왔으나 생활사건의 측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Holmes와 Rahe(1967)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Holmes와 Rahe는 일상생활 양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지속적인 생활사건은 질병 발생과 관계가 있다는 명제를 제한했고, Bell(1977)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많이 주며, 건강유지 증진 및 평형상태에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신장 및 체중증가, 생식기관과 2차 성징의 발달을 경험하고, 인지적 측면에서는 기계적 기억에서 논리적 기억으로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가 이루어져 지적 발달 과정을 가지며, 인간의 적응행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강중환, 1975. 민영순, 1975) 정서적 측면에서는 신체적 성적 성숙과 더불어 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치심이 강해지고 또한 외부에 대한 반항이 커지며 자아의식이 발달하면서도 고독감을 즐기며 또한 빠지기 쉽다 이 시기에는 현실문제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인한 정서의 불안정으로 흥분을 잘하기도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부모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관계에서 건전한 대인관계를 배우고(김재순, 1974),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욕구와 비례하여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이상노, 1979) 청소년기는 이러한 많은 변화에 대응하며 자아정체감

을 확립해야 하므로 다른 시기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그에 따른 개인적 반응도 다양하리라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생활 사건들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Bell (1977)은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 방법을 시도할 경험 및 기회가 없으므로 고위험 집단 이 된다고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행동,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증상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compas et al, 1987) 도복늬(1992)은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집단은 18~25세 군으로 정신적 호소도 가장 많다고 했다 이정숙과 조길자(1982)는 고3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학교와 진로문제, 교우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김정겸(1987)은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부모, 가족, 친지, 친구, 교사, 자기자신, 환경, 성서, 장래, 인간관계 경쟁 등이라 설명했다 이정순(1988)은 고등학생들의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을 지친문제, 환경, 교우 학교, 가정 문제로 설명했고, 서울시내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현경(1992)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영역별 심각성의 정도가 가정, 교우관계, 학업 및 학교생활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했다 오가실과 한정석(1990)은 서울 시내 인문고 남녀 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건강문제 호소가 많았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것, 형제간의 분화, 이사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체육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숙(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생존 여부, 학업성적, 가족내 분위기가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다양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기를 초래하거나 안녕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2. 대처방법

대처의 정의는 결과에 관계없이 스트레스적인 요구

를 다스려 가는 노력을 포함한다 Kahn 외(1964)는 대처 행동의 연구는 성공은 물론 실패도 포함시켜야 할 것 이석하였다 대처행위란 자동 반생적인 목적이 있는 노력으로 상황에 대한 인지적 반응이며(Lazarus & Folkman, 1994),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반응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행위이다

청소년의 대처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문헌에서 그 특성을 기술하였다 어떤 대처방법이 효과적인가는 시간과 스트레스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된다(compas, et al, 1987) Lazarus와 Folkman (1994)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행동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는 개인이 지각,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대처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이때 평가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개인을 중재하는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인지적 평가를 뜻한다

Bell(1977)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처행위를 장기적 대처방법,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현실성이 적고 개인에게 파괴적인 효과를 미치는 대처 행위를 단기적 대처방법 이라고 구분하여 적절한 장기 대처방법을 사용할 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스트레스에 적응해 나갈 수 있으나 부적절한 단기 대처방법을 사용할 때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된다고 하며 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재원(1989)은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은 남녀학생간에 차이가 있으며 부정, 보살, 투사, 전위, 반동형성을 한다고 했고, 이정순(1988)은 자신의 분세, 교우, 학교, 가정, 환경 문제의 순으로 대응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다

김혜숙(1991)의 연구결과 체육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은 라니오나 음악듣기, 스포츠, 부모의 요구나 규칙 따르기, 친한 사람과의 관계유지, 좋은 일 상상하기로 나타났다 박현경(1992)은 연구

결과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은 80%이상이 단기 대처 방법으로는 음악듣기, 긍정적 사고, 잡념 및 공상에 잠기기, 수면 등을, 장기 대처 방법으로는 조용히 문제를 분석하기, 문제 해결방법 강구, 다른 사람과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정적 대처방법으로는 욕이나 싸움, 식사거부, 물건파괴, 음주의 순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오가실과 한정석(1990)은 대응행위를 많이 쓸 수록 건강문제를 많이 호소한다고 했다 즉, 청소년의 대응행위는 많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청소년은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회피의 방법으로 어려운 감정을 발산하고 있어 미국 청소년들이 유우머나 이완방법을 사용한다는 Patterson과 McCubbin(1987)의 연구와 대조를 이룬다고 했다

Spivack과 Shusre(1985)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응자원, 스타일, 구체적 전략이 중요하며 효과적 대처방법은 직면한 상황 즉, 스트레스에 따라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같은 청소년기에 있으면서 인문계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학교보건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주로 사용하는 대처 방법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본 연구자가 간호학생들의 학교보건 실습지로 선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일 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중 임의로 선정된 1학년 4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2월 2일부터 1998년 2월 14일까지였다 질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자와 양호교사가 직접 연구목적과 기입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대상자가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였으며, 493매를 회수하여 이중 질문지에 대한 대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81매를 본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9문항, 스트레스 생활사건 30문항, 대처방법 37문항, 총 7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스트레스 생활사건 측정도구

연구도구는 학생들이 주로 경험하게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위해 Yeaworth, York & Hussey(1980)이 개발한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Questionnaire(ALCEQ)를 이경숙과 조길자(1983)가 수정한 것을 본 연구자와 현직 양호교사 3인이 수정,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측정은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각 생활사건 등에서 느낀 스트레스의 심각성 정도를 표시하게 하고 '전혀 힘들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많이 힘들다'에 5점을 주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다'에 기록하게 하여 0점 처리하여 분리 분석하였으며,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일어난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앞서 공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pre-test한 결과 Cronbach's  $\alpha$ 가 80이었으며, 조사대상자 481명에 대한 본 설문지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가 78이었다

##### 2) 대처방법 측정도구

스트레스 상황 시 취하게 되는 대처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강정희(198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48$ , 박현경(1992)의 연구 Cronbach's  $\alpha = 8113$ 의 신뢰도를 나타낸 Bell(1977)의 질문지와 본 연구자가 현직 양호교사 3인의 자문을 구하여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위해 보완하여 제작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대처방법은 총 3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에 각각 1~5점을 주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법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1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SPSS win(ver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산처리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방법은 산수분포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는 ANOVA,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 성적, 가족경제상태, 건강상태,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와의 관계, 문제 발생시 주 의논상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76명(78.2%), 여학생이 105명(21.8%)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불교가 168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천주교 순 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학생은 215명(44.8%)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은 10등 이내 92명(19.5%), 20등 이내 105명(22.3%), 30등 이내 135명(28.7%), 40등 이내 87명(18.5%), 50등 이내 43명(9.1%), 50등 이하 9명(1.9%)이었다. 가족 경제상태는 보통임이 316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어려움이 115명(23.9%), 소금 넉넉함이 25명(5.2%), 매우 어려움 22명(4.6%)의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86명(59.4%),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6명(9.3%)이었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406명(85.3%), 계부 또는 계모의 경우가 9명(1.9%),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혼자 있는 경우가 39명(8.2%),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는 22명(4.7%)이었다. 이는 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경(1992)의 연구 및 체육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숙(1991)의 연구 결과와는 비슷하나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금례(1988)의 연구결과에서 부모 모두 생존하는 경우의 94.0%와 비교해 볼 때 차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481

일반적 특성	실수(명)	백분율(%)
성별		
남	376	78.2
여	105	21.8
계	481	100.0
종교		
기독교	72	15.0
천주교	18	3.8
불교	168	35.0
없음	215	44.8
기타	7	1.5
계	480	100.0
성적		
10등 이내	92	19.5
20등 이내	105	22.3
30등 이내	135	28.7
40등 이내	87	18.5
50등 이내	43	9.1
50등 이하	9	1.9
계	471	100.0
가족 경제 상태		
매우 넉넉함	3	0.6
조금 넉넉함	25	5.2
보통임	316	65.7
조금 어려움	115	23.9
매우 어려움	22	4.6
계	481	100.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68	14.1
건강함	218	45.3
보통임	159	33.1
건강하지 않음	35	7.3
매우 건강하지 않음	1	2.0
계	481	100.0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 생존	406	85.3
계부	2	0.4
계모	7	1.5
어머니 사망	9	1.9
아버지 사망	30	6.3
부모 별거	6	1.3
이혼	16	3.4
계	476	100.0
부모와의 관계		
매우 만족함	78	16.3
만족함	229	47.7
보통임	120	25.0
불만족함	47	9.8
매우 불만족함	6	1.3
계	480	100.0

표 1 Continued

일반적 특성	실수(명)	백분율(%)
문제발생시 주 의논상대		
아버지	18	3.7
어머니	2	15.0
형제	50	10.4
친구	161	33.5
선배	3	0.6
교사	-	-
혼자서 해결	116	24.1
주변 여러사람과 함께	61	12.7
계	481	100.0

+ 무응답 처리 됨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만족함이 307명(64.0%)으로 많은 학생들이 만족하다고 응답했으나 만족하지 못함은 53명(11.1%)으로 나타났다 문제발생시 주 의논 상대는 친구가 161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혼자서 해결이 116명(24.1%), 어머니가 72명(15.0%),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가 61명(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의논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박현경(199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 대책 및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 여부 순위**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경험은 표 2와 같이 시험 및 수업의 과다(92.7%), 진로문제고민(91.9%), 성적이 떨어짐(91.5%), 공상잡념으로 인한 정신산만(91.2%), 새로운 친구 사귀(88.3%), 선생님의 꾸중 또는 불편한 관계(87.5%), 부모기대에 대한 부담감(87.1%), 자신의 외모에 대한 고민(84.8%), 선생님의 무관심 또는 이해부족(83.5%), 기능급수취득(81.8%) 등 주로 학업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항에서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경험을 높게 하고 있었고, 가장 낮게 경험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환각제나 진정제 사용(8.0%), 형제의 죽음(11.9%), 부모의 죽음(16.8%)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박현경(1992)의 연구 결과보다는 스트레스 심각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스트레스 생활사건 내용은 거의 일치하였다 인문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정숙 외(1982)의 경우 스트레스 생활사

건이 가장 많은 것은 학교와 진로문제, 교우관계 순이었고, 오가실 외(1990)의 연구에서는 학교성적의 하락(58.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형제간의 불화, 이사, 이성교제, 외모의 변화, 가까운 친척 사망의 순이었다. Mendez(1986)의 연구에서는 부모 죽음, 형제자매 죽음, 친구의 중병,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인문고, 상업고, 공업고 등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교 시험, 성적과 연결된 문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학교생활의 스트레스가 심각함이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었다

**3. 대상자(남녀 학생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문항별 심각성 정도**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일어난 학생들의 경우 그 영역별로 심각성 정도를 보면 표 3, 표 4와 같다

남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의 심각성 정도가 '부모의 죽음', '형제 자매의 죽음',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모의 실직 사업실패'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가장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생활사건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 '체중이 많이 나감'의 순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생활사건은 '형제 자매의 죽음', '친구의 죽음 중병', '부모의 죽음', '가족의 중병'의 순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 '형제 자매와의 잦은 싸움', '자신의 성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의 경우에 있어 '부모의 죽음(16.8%)', '형제 자매의 죽음(11.9%)',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19.5%)'는 전체 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에 비해 발생이 적은 편이나 일단 이런 생활사건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이며, 이는 박현경(1992), Mendez(198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었다

성별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차이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 남학생들은 스트레스 심각성의 정도가 높으나 여학생들은 낮았고, '친구의 죽음 중병', '체중이 많이 나감'은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심각성 정도가 높는데 비해 남학생들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문제 발생시 주 의논 상대가 친구가 가장 많음을 볼 때 여학생의 경우 친구의 죽음이나 중병은 스트레스 심각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키가 작음', '체중이 많이 나감'에 스트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 여부 순위

n=481

스트레스 생활사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일어난 경우	실수(%)
	실수(%)	실수(%)	
<b>학업 및 학교생활</b>			
• 엄한 교칙 또는 학교의 처벌	114(23.8)	366(76.3)	480(100.0)
• 시험 및 수업의 과다	35(7.3)	445(92.7)	480(100.0)
• 선생님의 꾸중 또는 불편한 관계	60(12.5)	419(87.5)	479(100.0)
• 선생님의 무관심 또는 이해부족	79(16.5)	400(83.5)	479(100.0)
• 성적이 떨어짐	41(8.5)	440(91.5)	481(100.0)
• 근로문제 고민	39(8.1)	440(91.9)	479(100.0)
• 기숙사 생활	87(18.2)	390(81.8)	477(100.0)
• 공상잡념으로 인한 정신산만	12(8.8)	436(91.2)	478(100.0)
<b>가정생활</b>			
•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61(12.9)	413(87.1)	474(100.0)
• 부모의 죽음	39(8.2)	80(16.8)	476(100.0)
• 형제 자매의 죽음	42(8.8)	57(11.9)	478(100.0)
•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38(8.0)	93(19.5)	477(100.0)
• 부모의 실직 사업 실패	35(7.4)	120(25.1)	479(100.0)
• 가족의 중병	35(7.4)	123(25.8)	477(100.0)
• 부모의 가정불화	30(6.3)	176(36.9)	477(100.0)
• 부모의 불이해 완고함	24(5.0)	237(49.6)	478(100.0)
• 형제 사매와의 잦은 싸움	19(4.1)	276(58.1)	475(100.0)
<b>교우관계</b>			
• 친구의 죽음, 중병	36(7.5)	116(24.2)	480(100.0)
• 친한 친구의 절교	28(5.9)	194(40.5)	479(100.0)
• 친구와의 불화	20(4.2)	273(57.2)	477(100.0)
•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27(5.7)	203(42.3)	480(100.0)
•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5(1.1)	422(88.3)	478(100.0)
• 믿을만한 친구가 없음	18(3.7)	298(62.3)	478(100.0)
<b>자신에 관한 문제</b>			
• 자신의 얼굴 머리 등의 생김이 고민됨	7(1.5)	408(84.8)	481(100.0)
• 키가 작음	15(3.2)	325(67.7)	480(100.0)
• 체중이 많이 나감	21(4.4)	263(55.1)	477(100.0)
• 허약체질로 인한 병지레	28(6.0)	191(40.0)	478(100.0)
• 환각제나 진정제 사용	43(9.0)	38(8.0)	474(100.0)
• 흡연 또는 음주를 자주함	29(6.0)	187(39.1)	478(100.0)
• 자신의 성에 관련된 것 (이성친구와의 성접촉, 성관계 등)	33(6.9)	144(30.1)	479(100.0)

+ 무응답 처리됨

레스를 느끼고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 '키가 작음'에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느끼나 '체중이 많이 나감'에는 스트레스 심각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옥련(1984), Wineman(1980) 등의 연구에서도 표준체중 군, 비만체중 군 모두의 경우 남학생은 긍정

적 신체상을 가지나 여학생들은 모두 긍정적 신체상을 가지지 않음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 4. 대상자(남녀학생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발생시 사용하는 대처방법을

표 3 대상자(남학생)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문항별 심각성 정도

n=481

스트레스 생활사건	전혀 힘들지 않다	그의 힘들지 않다	보통 이다	많이 힘들다	아주 많이 힘들다	총계 N(%)	평균± 표준편차
	N(%)	N(%)	N(%)	N(%)	N(%)		
<b>학업 및 학교 생활</b>							
•엄한 교칙 또는 학교의 처벌	29( 9.9)	47(16.0)	102(34.7)	75(25.5)	41(13.9)	294(100.0)	3.18±1.16
• 시험 및 수업의 과다	32( 9.2)	61(17.6)	136(39.3)	86(24.9)	31(9.0)	346(100.0)	3.07±1.07
• 선생님의 무중 또는 불편한 관계	40(12.0)	66(19.8)	119(35.6)	78(23.4)	31(9.3)	334(100.0)	2.98±1.13
• 선생님의 무관심 또는 이해부족	37(11.5)	66(20.6)	123(38.3)	60(18.7)	35(10.9)	321(100.0)	2.97±1.14
• 성적이 떨어짐	37(10.8)	45(13.2)	114(33.3)	91(26.6)	55(16.1)	342(100.0)	3.24±1.19
• 진로문제 고민	16( 4.7)	22(6.4)	110(32.0)	124(36.0)	72(20.9)	344(100.0)	3.62±1.03
• 기능·급수 취득	8( 2.6)	18(5.8)	120(38.3)	113(36.1)	54(17.3)	313(100.0)	3.60±0.93
• 공상잡념으로 인한 정신 산만	35(10.1)	51(14.7)	127(36.7)	88(25.4)	45(13.0)	346(100.0)	3.16±1.14
<b>가정생활</b>							
•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31(9.6)	39(12.0)	106(32.7)	93(28.7)	55(17.0)	324(100.0)	3.31±1.17
• 부모의 죽음	3( 4.5)	3( 4.5)	6( 9.1)	11(16.7)	43(65.2)	66(100.0)	4.33±1.11
• 형제, 자매의 죽음	5( 9.8)	-	5( 9.8)	12(23.5)	29(56.9)	51(100.0)	4.18±1.24
•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1( 1.2)	6( 7.4)	15(18.5)	24(29.6)	35(43.2)	81(100.0)	4.06±1.02
• 부모의 실직, 사업 실패	6( 5.9)	7( 6.9)	19(18.6)	35(34.3)	35(34.3)	102(100.0)	3.84±1.15
• 가족의 중병	6( 5.7)	5( 4.7)	30(28.3)	33(31.1)	32(30.2)	106(100.0)	3.75±1.11
• 부모의 가정불화	12( 8.6)	15(10.8)	38(27.3)	39(28.1)	35(25.2)	139(100.0)	3.50±1.22
• 부모의 몰이해 완고함	23(12.6)	25(13.7)	65(35.7)	40(22.0)	29(15.9)	182(100.0)	3.15±1.22
• 형제, 자매와의 잦은 싸움	45(21.5)	44(21.1)	74(35.4)	31(14.8)	15(7.2)	209(100.0)	2.65±1.18
<b>교우관계</b>							
• 친구의 죽음, 중병	13(12.5)	10( 9.6)	31(29.8)	24(23.1)	26(25.0)	104(100.0)	3.38±1.30
• 친한 친구의 절교	18(11.8)	9( 5.9)	52(34.0)	41(26.8)	33(21.6)	153(100.0)	3.41±1.23
• 친구와의 불화	27(12.7)	25(11.8)	78(36.8)	60(28.3)	22(10.4)	212(100.0)	3.12±1.15
•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33(19.9)	20(12.0)	49(29.5)	33(19.9)	31(18.7)	166(100.0)	3.05±1.37
• 새로운 친구를 사귀	141(42.9)	55(16.7)	100(30.4)	21( 6.4)	12( 3.6)	329(100.0)	2.11±1.14
• 믿음만한 친구가 없음	40(17.2)	43(18.5)	84(36.1)	40(17.2)	26(11.2)	233(100.0)	2.87±1.22
<b>자신에 관한 문제</b>							
• 자신의 얼굴 머리 등의 생김이 고민됨	41(13.0)	57(18.0)	122(38.6)	55(17.4)	41(13.0)	316(100.0)	2.99±1.18
• 키가 작음	55(22.4)	36(14.6)	76(30.9)	44(17.9)	35(14.2)	246(100.0)	2.87±1.33
• 체중이 많이 나감	78(44.8)	26(14.9)	47(27.0)	15( 8.6)	8( 4.6)	174(100.0)	2.13±1.21
• 허약체질로 인한 병치레	39(24.1)	29(17.9)	51(31.5)	28(17.3)	15( 9.3)	162(100.0)	2.70±1.27
• 환각제나 진정제 사용	12(36.4)	2( 6.1)	10(30.3)	5(15.2)	4(12.1)	33(100.0)	2.61±1.43
• 흡연 또는 음주를 자주함	44(26.3)	13( 7.8)	69(41.3)	27(16.2)	14( 8.4)	167(100.0)	2.72±1.25
• 자신의 성에 관련된 것 (이성친구와의 성접촉, 성관계 등)	21(16.8)	25(20.0)	40(32.0)	25(20.0)	14(11.2)	125(100.0)	2.89±1.23

보면 표 5, 표 6과 같다

대상자들이 스트레스 생활사건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음악을 듣는다',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꼭 참는다',

'조용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의 순이고, 여학생의 경우 '음악을 듣는다', '다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조용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의 순으로 나

표 4 대상자(여학생)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분양변 심각성 정도.

n=481

스트레스 생활사건	전혀 힘들지 거의 힘들지		부담 이니 N(%)	많이 힘이 아주 많이		총계 N(%)	평균± 표준편차
	않는다 N(%)	않는다 N(%)		드나 N(%)	힘드나 N(%)		
<b>학업 및 학교 생활</b>							
• 엄한 교직 또는 학교의 처벌	10(13.9)	12(16.7)	28(38.9)	15(20.8)	7(9.7)	72(100.0)	2.96±1.16
• 시험 및 수업의 과다	6(6.1)	22(22.2)	46(46.5)	17(17.2)	8(8.1)	99(100.0)	2.99±.98
• 선생님의 꾸중 또는 불편한 관계	15(17.6)	14(16.5)	26(30.6)	21(24.7)	9(10.6)	85(100.0)	2.94±1.25
• 선생님의 무관심 또는 이해부족	6(7.6)	16(20.3)	34(43.0)	16(20.3)	7(8.9)	79(100.0)	3.03±1.04
• 성적이 떨어짐	8(8.2)	11(11.2)	39(39.8)	25(25.5)	15(15.3)	98(100.0)	3.29±1.11
• 진도문제 고민	2(2.1)	9(9.4)	37(38.5)	30(31.3)	18(18.8)	96(100.0)	3.55±0.97
• 기출답수 취득	4(5.2)	7(9.1)	43(55.8)	18(23.4)	5(6.5)	77(100.0)	3.17±0.88
• 상상삼념으로 인한 정신 산만	10(11.1)	12(13.3)	30(33.3)	33(36.7)	5(5.6)	90(100.0)	3.12±1.08
<b>가정생활</b>							
•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12(13.5)	13(14.6)	36(40.4)	25(28.1)	3(3.4)	89(100.0)	2.93±1.05
• 부모의 죽음	1(7.1)	2(14.3)	2(14.3)	1(7.1)	8(57.1)	14(100.0)	3.93±1.44
• 형제, 자매의 죽음	-	-	-	1(16.7)	5(83.3)	6(100.0)	4.83±0.41
•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4(33.3)	2(16.7)	1(8.3)	3(25.0)	2(16.7)	12(100.0)	2.75±1.60
• 부모의 실직 사업 실패	2(11.1)	1(5.6)	5(27.8)	7(38.9)	3(16.7)	18(100.0)	3.44±1.20
• 가족의 중병	-	1(5.9)	3(17.6)	11(64.7)	2(11.8)	17(100.0)	3.82±0.73
• 부모의 가정불화	4(10.8)	7(18.9)	8(21.6)	11(29.7)	7(18.9)	37(100.0)	3.27±1.28
• 부모의 몸이해 완고함	5(9.1)	5(9.1)	26(47.3)	9(16.4)	10(18.2)	55(100.0)	3.25±1.14
• 형제, 자매와의 잦은 싸움	18(26.9)	20(29.9)	24(35.8)	5(7.5)	-	67(100.0)	2.24±0.94
<b>교우관계</b>							
• 친구의 죽음 중병	-	1(8.3)	2(16.7)	4(33.3)	5(41.7)	12(100.0)	4.08±1.00
• 친한 친구의 절교	4(9.8)	4(9.8)	11(26.8)	15(36.6)	7(17.1)	41(100.0)	3.41±1.18
• 친구와의 불화	14(23.0)	5(8.2)	17(27.9)	18(29.5)	7(11.5)	61(100.0)	2.98±1.34
•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10(27.0)	1(2.7)	6(16.2)	11(29.7)	9(24.3)	37(100.0)	3.22±1.55
• 새로운 친구를 사귀	41(44.1)	21(22.6)	27(29.0)	3(3.2)	1(1.1)	93(100.0)	1.95±0.98
• 믿음만한 친구가 없음	13(20.0)	7(10.8)	25(38.5)	12(18.5)	8(12.3)	65(100.0)	2.92±1.27
<b>사신에 관한 문제</b>							
• 자신의 얼굴 머리 등의 생김이 고민됨	6(6.5)	8(8.7)	51(55.4)	12(13.0)	15(16.3)	92(100.0)	3.24±1.04
• 키가 작음	16(20.3)	7(8.9)	23(29.1)	22(27.8)	11(13.9)	79(100.0)	3.06±1.32
• 체중이 많이 나감	12(13.5)	12(13.5)	35(39.3)	20(22.5)	10(11.2)	89(100.0)	3.04±1.17
• 허약체질로 인한 병치레	6(20.7)	4(13.8)	14(48.3)	4(13.8)	1(3.4)	29(100.0)	2.66±1.08
• 환각제나 진정제 사용	2(40.0)	-	2(40.0)	-	1(20.0)	5(100.0)	2.60±1.67
• 흡연 또는 음주할 자주함	6(30.0)	3(15.0)	6(30.0)	3(15.0)	2(10.0)	20(100.0)	2.60±1.35
• 자신의 성에 관련된 것 (이성친구와의 성접촉, 성관계 등)	5(26.3)	4(21.1)	8(42.1)	1(5.3)	1(5.3)	19(100.0)	2.42±1.12

타나 남녀 학생들이 유사한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였으나 특히 여학생의 경우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른다', '잠을 잔다', '운다' 등의 대처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녀학생 모두가 '점을 보러 간다', '가출한다', '경식한다', '약을 먹는다',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방법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남녀학생 모두의 경우 '술을 마신다'의 경우가 각각 42.3

표 5 대상자(남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

대처 방법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많이 사용한다		아주 많이 사용한다		평균± 표준편차
	N(%)	N(%)	N(%)	N(%)	N(%)	N(%)	N(%)	N(%)			
• 술을 마신다	159(42.3)	58(15.4)	126(33.5)	24(6.4)	9(2.4)	2.11±1.10					
• 무작정 걷는다	141(37.6)	101(26.9)	83(22.1)	32(8.5)	18(4.8)	2.16±1.16					
• 그 문제에 대해 과장되게 큰 소리로 떠벌린다	178(47.5)	101(26.9)	69(18.4)	19(5.1)	8(2.1)	1.87±1.02					
• 음악을 듣는다	49(13.0)	33(8.8)	92(24.5)	97(25.8)	105(27.9)	3.47±1.33					
•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28(7.5)	46(12.3)	102(27.3)	130(34.8)	68(18.2)	3.44±1.14					
• 다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41(10.9)	71(18.9)	117(31.2)	99(26.4)	47(12.5)	3.11±1.18					
•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211(56.6)	92(24.7)	46(12.3)	18(4.8)	6(1.6)	1.70±0.97					
• 꼭 참는다	40(10.6)	53(14.1)	113(30.1)	94(25.0)	76(20.2)	3.30±1.24					
• 잡념이나 공상에 잠긴다	53(14.1)	60(16.0)	107(28.5)	90(24.0)	65(17.3)	3.14±1.28					
• 그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	32(8.5)	68(18.1)	146(38.8)	85(22.6)	45(12.0)	3.11±1.10					
• 조용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26(7.0)	56(15.0)	129(34.5)	118(31.6)	45(12.0)	3.27±1.08					
• 잠을 더 많이 잔다	85(22.7)	102(27.2)	91(24.3)	50(13.3)	47(12.5)	2.66±1.30					
• 낙서를 한다	192(51.2)	81(21.6)	48(12.8)	34(9.1)	20(5.3)	1.96±1.22					
• 화장실을 하거나 미장원(이발소)에 간다	279(74.2)	49(13.0)	32(8.5)	12(3.2)	4(1.1)	1.44±0.86					
• 점을 보러간다	355(94.4)	17(4.5)	3(0.8)	1(0.3)	-	1.07±0.31					
• 물건을 닦치는 대로 산다	323(85.9)	38(10.1)	11(2.9)	2(0.5)	2(0.5)	1.20±0.56					
• 운동(춤)으로 해소한다	116(30.9)	68(18.1)	99(26.3)	45(12.0)	48(12.8)	2.58±1.37					
•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행동을 취한다	53(14.1)	85(22.6)	164(43.6)	62(16.5)	12(3.2)	2.72±1.00					
• 머리를 긁거나 손바닥을 비빈다	178(47.5)	100(26.7)	71(18.9)	18(4.8)	8(2.1)	1.87±1.02					
•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51(13.6)	117(31.2)	145(38.7)	42(11.2)	20(5.3)	2.63±1.03					
•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	212(56.5)	98(26.1)	48(12.8)	11(2.9)	6(1.6)	1.67±0.92					
• 일어섰다 앉았다 하거나 왔다갔다 한다	247(65.7)	75(19.9)	39(10.4)	13(3.5)	2(0.5)	1.53±0.85					
• 영화, 연극, 운동경기를 보러 간다	182(48.4)	82(21.8)	77(20.5)	18(4.8)	17(4.5)	1.95±1.14					
• 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한다	214(57.1)	71(18.9)	54(14.4)	20(5.3)	16(4.3)	1.81±1.13					
• 음식을 배부르게 먹거나 자주 군것질을 한다	145(38.6)	76(20.2)	78(20.7)	50(13.3)	27(7.2)	2.30±1.30					
•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다	167(44.4)	46(12.2)	57(15.2)	50(13.3)	56(14.9)	2.42±1.52					
•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대비한다	85(22.6)	68(18.1)	117(31.1)	62(16.5)	44(11.7)	2.77±1.29					
• 기도한다	235(62.5)	54(14.4)	46(12.2)	24(6.4)	17(4.5)	1.76±1.16					
•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196(52.4)	100(26.7)	56(15.0)	12(3.2)	10(2.7)	1.77±1.00					
•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른다	104(27.8)	56(15.0)	103(27.5)	66(17.6)	45(12.0)	2.71±1.36					
• 약을 먹는다	323(86.1)	34(9.1)	13(3.5)	3(0.8)	2(0.5)	1.21±0.59					
• 과거 경험을 살려서 해결한다	76(20.4)	71(19.1)	144(38.7)	55(14.8)	26(7.0)	2.69±1.16					
• 그 문제를 잊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한다	66(17.7)	83(22.3)	127(34.1)	64(17.2)	32(8.6)	2.77±1.18					
•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본다	39(10.5)	64(17.3)	122(33.0)	106(28.6)	39(10.5)	3.11±1.14					
• 운다	260(69.5)	64(17.1)	34(9.1)	10(2.7)	6(1.6)	1.50±0.89					
• 결석한다	295(84.8)	25(7.2)	22(6.3)	1(0.3)	5(1.4)	1.26±0.72					
• 가출한다	305(87.9)	26(7.5)	11(3.2)	2(0.6)	3(0.9)	1.19±0.60					

%, 36.6%이였으며, 이는 박현경(1992)의 연구와 일치했다 오가실 외(199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응답자의 64.5%가 맥주나 술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대응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나라 청소년 문화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시 대처방법으로 '결석

표 6 대상자(여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

대처 방법	신이 사병이	서이 사병	가끔	많이	아주 많이	평균± 표준편차
	사 없거나 N(%)	하지 않거나 N(%)	사용한다 N(%)	사용한다 N(%)	사용한다 N(%)	
• 술을 마신다	42(40.4)	24(23.1)	34(32.7)	3(2.9)	1(1.0)	2.01±0.97
• 무작정 걷는다	19(18.1)	22(21.0)	42(40.0)	14(13.3)	8(7.6)	2.71±1.14
• 그 문제에 대해 과장되게 큰 소리로 떠벌린다	43(41.0)	36(34.3)	22(21.0)	3(2.9)	1(1.0)	1.89±.90
• 음악을 듣는다	3(2.9)	4(3.8)	25(24.0)	26(25.0)	46(44.2)	4.04±1.05
•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6(5.7)	12(11.4)	31(29.5)	30(28.6)	26(24.8)	3.55±1.15
• 다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5(4.8)	4(3.8)	34(32.4)	44(41.9)	18(17.1)	3.63±0.97
• 불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51(48.6)	21(20.0)	17(16.2)	9(8.6)	7(6.7)	2.05±1.27
• 꼭 잡는다	23(21.9)	15(14.3)	34(32.4)	16(15.2)	17(16.2)	2.90±1.35
• 잠남이나 공상에 잠긴다	12(11.4)	16(15.2)	29(27.6)	33(31.4)	15(14.3)	3.22±1.21
• 그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	9(8.6)	16(15.2)	42(40.0)	31(29.5)	7(6.7)	3.10±1.03
• 조용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7(6.7)	8(7.6)	39(37.1)	36(34.3)	15(14.3)	3.42±1.04
• 잠을 더 많이 산다	15(14.3)	20(19.0)	28(26.7)	18(17.1)	24(22.9)	3.15±1.36
• 낚서들 한다	23(22.1)	21(20.2)	25(24.0)	23(22.1)	12(11.5)	2.81±1.32
• 화장을 하거나 미장원(이발소)에 간다	60(57.7)	25(24.0)	12(11.5)	6(5.8)	1(1.0)	1.68±0.96
• 점을 보러간다	96(91.4)	7(6.7)	2(1.9)	-	-	1.10±0.36
• 불건을 닦치는 대로 산다	71(67.6)	21(20.0)	8(7.6)	3(2.9)	2(1.9)	1.51±0.90
• 운동(춤)으로 해소한다	40(38.5)	23(22.1)	26(25.0)	9(8.7)	6(5.8)	2.21±1.21
•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행동을 취한다	18(17.3)	33(31.7)	38(36.5)	12(11.5)	3(2.9)	2.51±1.00
• 머리를 긁거나 손바닥을 비빈다	55(52.9)	33(31.7)	13(12.5)	3(2.9)	-	1.65±0.81
•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16(15.4)	31(29.8)	35(33.7)	14(13.5)	8(7.7)	2.68±1.13
•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	52(50.0)	25(24.0)	20(19.2)	4(3.8)	3(2.9)	1.86±1.05
• 일어섰다 앉았다 하거나 왔다갔다 한다	63(60.6)	27(26.0)	10(9.6)	4(3.8)	-	1.57±0.82
• 영화, 연극 운동경기를 보러 간다	47(45.2)	29(27.9)	19(18.3)	6(5.8)	3(2.9)	1.93±1.06
• 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한다	51(49.5)	24(23.3)	19(18.4)	4(3.9)	5(4.9)	1.91±1.13
• 음식을 배부르게 먹거나 자주 굶기질우 한다	26(25.0)	14(13.5)	25(24.0)	22(21.2)	17(16.3)	2.90±1.42
• 남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다	67(64.4)	18(17.3)	9(8.7)	7(6.7)	3(2.9)	1.66±1.08
•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대비한다	28(26.9)	33(31.7)	27(26.0)	8(7.7)	8(7.7)	2.38±1.18
• 기도한다	47(45.2)	16(15.4)	21(20.2)	7(6.7)	13(12.5)	2.26±1.41
•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54(51.9)	23(22.1)	21(20.2)	2(1.9)	4(3.8)	1.84±1.06
•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른다	12(11.5)	12(11.5)	29(27.9)	39(37.5)	12(11.5)	3.26±1.17
• 약을 먹는다	95(91.3)	6(5.8)	2(1.9)	1(1.0)	-	1.13±.46
• 과거 경험을 살려서 해결한다	19(18.3)	31(29.8)	37(35.6)	14(13.5)	3(2.9)	2.53±1.03
• 그 문제를 잊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한다	10(9.6)	17(16.3)	48(46.2)	21(20.2)	8(7.7)	3.00±1.03
• 그 문제를 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본다	8(7.7)	19(18.3)	41(39.4)	26(25.0)	10(9.6)	3.11±1.06
• 운다	90(90.9)	8(8.1)	1(1.0)	-	-	3.15±1.33
• 결석한다	17(16.3)	14(13.5)	28(26.9)	26(25.0)	19(18.3)	1.10±0.33
• 가출한다	92(92.9)	4(4.0)	3(3.0)	-	-	1.10±0.39

한다'는 남학생의 경우 80%, 여학생의 경우 10%로 나타났고, '가출한다'는 남학생의 경우 47%, 여학생의 경우 30%로 나타났다. '결석한다', '가출한다'는

수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대처방법이나 개인, 가족, 학교 및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문제원인 파악 및 상담과 적

극적인 지도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라 생각된다

대처방법은 생활경험에 따라 개인의 독특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사용하는 대처방법과는 관계가 있다(Joanne, 1985. Panzarine, 1985) 이평숙(1980)은 비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에서 회피하거나 감정을 발산시키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므로 스트레스를 가중화시켜 정서적 손상을 받게 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 유발과 교우관계,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개인별 효율적 대처방법 사용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방법과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생활사건과의 관계는 성적(F=1 440, p=0.008), 건강상태(F=1.388, p=0 015), 부모와의 관계(F=1 685, p=0 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성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김혜숙(1991), 노혜숙(1984), 이정숙(1982)의 연구와도 일치하였고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신체적 정서적 부적응이나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오가실과 한정석, 1990. Aro, 1987. Newcomb et al. 1981. Swearngen & Cohen, 1985)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 심각성을 높게 된다 부모는 자녀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자녀들의 행동문제와 상관되어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출생 시부터 영향을 미치고(조현춘, 1994),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은 가족 구성원간의 만족감, 긍지, 결속력,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고 가족의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이므로(Olson, 1983) 청소년은 과중한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일반적 특성과 대처방법과의 관계는 성별(t=-3 100, p=0 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김혜숙(1991)

**표 7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481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생활사건		대처방법	
	F or T	p	F or T	p
성별				
남	376	1 829	0 068	-3 100 0 002
여	105			
종교				
기독교	72			
천주교	18	0.082	0.908	1 100 0 285
불교	168			
없음	215			
기타	7			
성적				
10등이내	92			
20등이내	105			
30등이내	135	1 440	0 008	0 966 0 558
40등이내	87			
50등이내	43			
50등이하	9			
가족 경제 상태				
매우 넉넉함	3			
조금 넉넉함	25	1 028	0 419	0 871 0 755
보통임	316			
조금 어려움	115			
매우 어려움	22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68			
건강함	218	1 388	0 015	0 620 0 992
보통임	159			
건강하지 않음	35			
매우 건강하지 않음	1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 생존	406			
계부	2			
계모	7			
어머니 사망	9	0 957	0 597	0 751 0 928
아버지 사망	30			
부모 별거	6			
이혼	16			
부모와의 관계				
매우 만족함	78			
만족함	229	1 685	0 000	0 893 0 714
보통임	120			
불만족함	47			
매우 불만족함	6			

표 7 계속 n=481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생활사건		대처방법	
	F or T	p	F or T	p
문제발생시 주 의논상대				
아버지	18			
어머니	2			
형제	50			
친구	161	0.848	0.839	1.317
선배	3			
교사				
혼자서 해결	116			
주변 여러사람과 함께	61			

의 성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남녀 학생의 효율적 대처방법에 대한 지도 방안이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시내 공업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그 대처방법을 조사하여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학교보건사업을 강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학교보건 실습사로 선정하고 있는 부산시내에 위치한 일 공업고등학교 남녀 1학년 학생 481명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1998년 2월 2일부터 1998년 2월 14일까지 질문지를 통하여 연구자와 양호교사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도구는 Yeaworth, York & Hussey(1980)가 개발한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Questionnaire(ALCEQ)를 이정숙과 조길지(1997)가 수정한 것을 기초로 본 연구자와 양호교사 3인이 재수정하여 제작한 30분항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질문지와 Bell(1977)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법 질문지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박현경(1992)이 사용한 질문지를 양호교사 3인과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37분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7.5)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생활사건, 대처방법은 Frequency,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았고,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 생활사건, 대처방법은 ANOVA, t-test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376명, 여학생 105명으로 총 481명이다 종교는 44.8%가 없었고, 있는 경우는 불교가 35.0%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9.4%이었고, 부모의 생존의 경우 양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가 85.3%이었고 부모와의 만족 정도는 64%가 만족한다고 했다 문제발생시 주 의논 상대는 친구가 33.5%가 가장 많았다

2) 대상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 심각성은 남학생이 경우 '부모의 죽음', '형제 사매의 죽음',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형제 사매의 죽음', '친구의 죽음이나 중병', '부모의 죽음', '가족의 중병'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남학생의 경우 '음악을 듣는다',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꼭 잡는다', '조용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음악을 듣는다 '다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노래를 부른다', '삼을 잔다', '운다' 등의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대처 방법 사용은 모두 '술을 마신다'가 남학생이 42.3%, 여학생이 36.6%, '결석을 한다'는 남학생이 8.0%, 여학생이 1.0%, '가출을 한다'는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3.0%을 나타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생활사건과의 관계는 성직(F=1.440, p=0.008), 건강상태(F=1.388, p=0.015), 부모와의 관계(F=1.685, p=0.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일반적 특성과 대처방법과의 관계는 성별(t=-3.100, p=0.002)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 2. 제 언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우리 나라 문화에 맞는 청소년기 학생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질적 접근 연구와 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2) 학교보건사업에서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측정, 평가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수금 스트레스 질환자와 정상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방법,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2 강정희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3 강지숙 스트레스가 일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4(1), 1-20, 1984
- 4 고성희 생활사건 연구에 대한 비평적 분석, 간호학회지, 23(2), 49-63, 1984
- 5 고성희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선북의대 부속간진 논문집, 제8집, pp 92-101, 1982
- 6 김경식 한국 중 고등학생의 신체 발육상태, 체력장 검사 및 신체적 자아사이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17(4), 386-393, 1978
- 7 김매자, 구미옥 간호원이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 간호학회지 4(2), 281-287, 1975
- 8 김미경 대전지역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월경증상 호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신의학, 32(2), 135-144, 1989
- 9 김영숙 외 8인 성인간호학, 수문사 서울, p 39 1986
- 10 김영희, 박형숙 일부 도시주부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간 호학회지, 22(4), 569-588, 1992
- 11 김새은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대 출판부, 서울 p 25, 1974
- 12 김정결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13 김조자 환자 스트레스와 기록방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3
- 14 노혜숙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5 도복늬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42(2), 135-140, 1982
- 16 민영순 발달심리학, 교육출판사, 서울, pp 280-282, 1975
- 17 박현경 서울시내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심각성 정도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18 신희선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6(4), 808-819, 1996
- 19 양미선 여고생들의 자아개념, 신체상 및 성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20 양수, 유숙자 서울시내 일부 간호사들의 불면 발생과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관계조사, 최신의학, 31(5), 125-134, 1988
- 21 오가실 건강 스트레스, 대응의 개념적 기틀, 간협신보, 제11-15호, 1985
- 22 오가실, 한정식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의 관계-청소년을 대상으로-, 간호학회지, 20(3), 414-429, 1990
- 23 오현이 일부 체육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24 유숙자 외 5인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서울, pp 209-212, 1983
- 25 이상노 성격과 행동의 지도, 중앙 적성 연구소 출판부, 서울, p 98, 1979
- 26 이소우 임원스트레스가 수면형태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6(2), 36-43, 1986
- 27 이옥련 비만학생과 표준체중 학생의 건강통계위 성격과 신체상에 대한 비교 연구-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8 이재원 스트레스 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략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 29 이정숙, 조길자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들 사이의 스트레스 사건의 비교, 중앙의학, 45(1), 57-62, 1983
- 30 이정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 31 장병립 청년심리학, 법문사, 서울, pp 65-66, 304, 1965
- 32 장영희 생리현상 인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분석-일부 지역 여중생과 여고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0(3), 66-79, 1981
- 33 조결자 김윤희, 조미영 청소년의 가정환경 요인과 자아개념, 정신건강 비교 연구 대한간호, 26(1), 96-115 1987
- 34 조현춘,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35 최선하 여고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운동 및 수면과의 관계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6(1), 25-31, 1992
- 36 최정훈 지각형성검사 예비검사형 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9집, pp 67-85, 1972
- 37 홍강의 외 20인 학생사안의 예방과 지도-정신건강,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4
- 38 홍대식 사회심리학 박역사, 서울, pp 85-89, 1986
- 39 Aro, H, Life Stress and Psychosomatic Symptoms among 14 to 16 years old finish adolescents,

- Psychological Medicine, 17(1), 191-201, 1987
- 40 Bell J M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 in mental illness and wellness behavior Nurs Res, 26(2), 136-141, 1977
  - 41 Compas, B E Coping with stress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1987
  - 42 Compas, B E, Davis, G E, Forsythe C J and Wagner B N Assessment of major and daily stressful events during adolescence The adolescent perceived event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4), 534-541, 1987
  - 43 Grey, M & Hayman, L L Assessing stress in children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5) 316-326 1987
  - 44 Holmes, T H and Rahe R 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of Psychosomatic Research 9, 213-218, 1967
  - 45 Jaloweic, A & Powers M J Stress & coping hypertensive &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1), 10-15 1981
  - 46 Joanne H V How To Reduce Stress and Avoid Burnout, Nursing, 15 7-13 1985
  - 47 Lazarus, R S and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1984 김정희 역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대광문화사, 서울, pp 71-136, pp 155-156, 1994
  - 48 Mendez, L K, Yeaworth, R S York, J A and Goodwin, T Factors in influenci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life change events, Nursing Research, 19, 384-388, 1980
  - 49 Murphy, M Stress management classes a health promotion tool The canadian Nurses 77(6), 29-31, 1981
  - 50 Newcomb, M Huba, C and Bentler P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stressful life events among adolescents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400-414, 1981.
  - 51 Olson, D, Russell, C & Sprenkle, D Circump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s(VI) Theoretical Up Date Family Process, 22, 69-83, 1983
  - 52 Panzarine, S Coping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dv Nur Sc, 7, 49-57, 1985
  - 53 Paykel E S Contribution of life events to causation of psychiatric illness Psychological medicine 8 245-254 1978
  - 54 Rosenberger M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ton Rose Monograph seri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 10, 1971
  - 55 Selye The stress syndrom, Am J Nurs, 3, 97-99, 1965
  - 56 Werkman S L Psychiatric disorders of adolescence In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 II 2nd ed by Atrietis & Basic book Inc New York, p 1223 1974
  - 57 Wilcox B L Sociological support life stress and psychoadjustment A test of buffering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371-386 1981
  - 58 Williams, A, Ware J and Donald, C A model of mental health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pplicable to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24-336, 1981
  - 59 Winemann, NM Obesity Locus of Control, Body Image Weight Loss and Age-at-one Set, Nursing Research 29(4), 231-237 1980
  - 60 Spivack, G and Shusre B,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Am J of Com Psycho, 13, 226-243, 1985
  - 61 Swearingen E M and Cohen, L H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Adolesc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45-1054, 1985
  - 62 Yeaworth R C, York J Hussey M A et al The development of an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scale, Adolescence, 15(57) 93-97 1980